

2023년 2월 24일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회사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주와의 신뢰 관계 유지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부당 고용 관련 이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주주 서한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미 지역 소재 두 곳의 협력사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북미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를 조사했습니다. 현재, 다른 북미 1차 협력사에서는 미성년자 고용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두 적절한 고용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한 고용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보기>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인터뷰, 현장 점검 등의 방식으로 북미 지역 29개 1차 협력사를 조사했으며, 미 노동부와 협력해 고용 관련 규정 준수 교육 프로그램을 3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부당 고용 형태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무관용 원칙,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원 확인 방법,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익명의 고충 상담 핫라인을 개설하도록 하고, 제3의 고용 중개업체를 통한 고용을 금지하는 교육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든 사업장에서 부당 고용 형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는 협력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부당 고용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하는 것은 물론이며, 규정 준수 위반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사안과 관련, 제3의 고용 중개업체가 협력사에 근로자에 관하여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사들이 엄격한 글로벌 고용 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선 협력사들이 관련 노동 법률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를 포함, 글로벌 사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및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을 중시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앨라배마 미국생산법인과 협력 관계에 있는 두 회사에 대한 이슈를 인지하고, 즉시 북미 생산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진단 등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들이 관련

노동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그에 따른 필요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협력사가 외부의 독립된 감사업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SL Alabama, SMART Alabama 두 협력사는 거래 관계에 있던 제3의 고용 중개업체가 채용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인증함에 따라 해당 고용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SL Alabama는 관련 노동 법률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특별 감사위원회 구성에도 동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부당 고용 형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할 경우 단호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SMART Alabama와의 지분 관계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앨라배마 루베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자리들이 유지되고, 동시에 아동 노동 관련 모든 법률들이 준수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전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내부 기준과 가치를 준수하기 위해, 협력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각국의 법률을 엄격하게 지킬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2년부터 공급망 ESG 진단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이번 공급망 이슈와는 별도로, 현대자동차는 각 협력사에 대한 현장 실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심층 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진단 결과는 올해 7월까지 출간 예정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이사회도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사실관계 및 후속 조치를 지속해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과 더불어 부당 고용 이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영 전반에 걸친 ESG 관리 체계 강화 가속화를 주문해 왔습니다. 올해 3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세부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경영진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한 ESG 관리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장재훈